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3차)

1. 일 시 : 2013.01.18(금) 15:00 ~ 16:00
2. 장 소 : 대학본부·경영관 303호
3. 참 석 : 8명(위원장 정태준, 위원 박중환, 위원 최인수, 위원 문귀민,
위원 박정목, 위원 강인호, 위원 김진호, 위원 이채연)
4. 불 참 : 0명
5. 회의안건 : 2013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논의

◆ 위원장 정태준

그동안의 경과과정을 설명드리면 양쪽 자료가 검토된 후 2차회의 때 학교가 최소 동결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학생들의 등록금 제시안과 기본적 배경을 들어보는게 어떠하냐고 묻다.

◆ 위원 김진호

2차 회의때 제가 양쪽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한 것으로 학교측의 안은 이미 들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싶다 라고 하다.

◆ 위원 문귀민

2011년 대학감사결과 과대 예산편성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12.7% 가량 인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동명대학교에서는 작년에 5.1% 인하하였으니 7.1%의 인하여력이 있는거 아닌가? 3차 회의 전까지 예산기획팀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추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 2013년 본예산(안), 중점 사업내역, 적립금현황, 법인전입금현황, 회계감사결과자료를 본 후 근거를 찾아서 우리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12.7%라는 특수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대학의 것에 집중하면 좋겠다. 2차 회의 종료후 예산기획팀에서 들었던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묻고 안은 제시하지 않고 자료만 계속해서 요구하면 회의진행이 어렵다. 일단 큰틀에서 봐서 회의진행전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주면 좋겠고 서로 신뢰를 하고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다.

◆ 위원 문귀민

신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년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세세한 자료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라고 하다.

◆ 위원 이채연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은 학교에서 엄격하게 감사 받는걸로 알고 있다. 광범위한 자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많은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인하배경이 될 수 있는가 부터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적정한 교육비 예산투입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적정한 등록금 수입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 위원 최인수

3차 회의동안 자료만 계속 요구하니깐 회의진행이 어렵다. 학생측에서 타대학의 사례를 파악해보는게 어떠하느냐라고 하다.

◆ 위원 김진호

부모 입장에서 학생측 입장을 공감한다. 오늘 인터넷을 보니 전남대학교가 일부 인하한 것으로 나오고 사립대학교는 대세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동결인 것 같다. 학생측의 구체적인 안을 듣고싶다. 그리고 자료는 회의전 요구해서 열람 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교는 1차회의때 과년도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으로 해서 이미 인하여력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인하한다고 하는 국립대학교들도 형식상 소폭에 그치고 있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서 올바른 재정운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중요자료들을 잘 검토해서 의견을 좁히는 회의진행이 되었으면 한나라고 하다.

◆ 위원 김진호

학생들이 요구한 자료를 열람시켜 충분히 검토가 된 후 다음 회의로 갔으면 한나라고 하다.

◆ 위원장 정태준

학생들의 요청한 자료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진행은 무리인 것 같다. 4차 회의때 제시안을 쫓으면 한나라고 하며 다음회의는 1월 22일 14:00가 어떠하냐고 묻다.

◆ 위원 문귀민
동의하다.

◆ 위원 일동
동의하다.

폐회시간 16:00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기획처	처장	정태준	정태준
학생처	처장	박중환	박중환
사무처	처장	최인수	최인수
총학생회	회장	문귀민	문귀민
총학생회	부회장	박정묵	박정묵
총대의원회	의장	강인호	강인호
총동창회	부회장	김진호	김진호
전문위원	세무사	이채연	이채연

간사 김승우 (서명)